하루를 시작하며

허 경 자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누구를 탓하랴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공개됐다.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등 3개 분야에 27개의 지표가 적용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유일하게 최고 등급(가)을 받은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최하위 등급(마)을 받았다. 국제컨벤션센터는 2단계(나→라) 경제통상진흥원은 3단계(가→라) 하락했다. 기관장 평가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국제컨벤션센터는 마 등급의 평가를 받는 불명예를 겪었다.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소관 기관을 진단하고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축소, 협업하도록 권장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산 건전성에 위험이 큰 지방의 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과 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정부의 혁신기조를 살펴서 선행적으로 내부혁신에 돌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드러나는 산하기관의 실망스러운 경영행태와 연이은 잡음은 컨설팅 정도의 의례적 후속조치로 해결될 수가 없다. 임명권자의 결연한 혁신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무한 반복되는 난제인 것이다.

기관장 임명은 능력제일주의가 기본이다.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물이라면 단순히 임명권자의 지연, 학연, 선거에 관여됐거나 보통사람이 갖는 도덕적 흠결 정도에 매몰돼 그 역량을 간과하면 안된다. 하지만 오로지 연고위주의 낙점 인사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사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본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스스로 진단하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도정의 안정은 물론 퇴임 후 불거지는 각종 불명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에 각각의 고유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관련 전문성과 능력의 소유자를 기용해 기획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기관을 담당하는 실국에서 관리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을 규제하고 지속성을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통과 지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유도해야 하는 담당 실국의 역할에 반하는 것으로 필히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도 자율성 보장에서 출발해야한다.

오영훈 지사의 취임이 3개월을 맞는다. 양대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인선에 이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개인적 의혹 및 도덕성 검증과 함께 업무에 대한 매서운 질의로 다양한 능력의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를 기대한다. 내년 이맘때 발표될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평가결과에 도민 모두가 안도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임명권자의 공익적 결단과 기관장들의 대의적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

스토킹 범죄, 제주 '안심' 판단 아직 이르다

전국 공분을 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제주 스토킹 범죄도 관심사다. 작년 '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됐지만 지역사회 스토킹 신고가 여전히 급증하는 현실에서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초기 적극 대응을 통한 강력한 치안유지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내 스토킹 관련 범죄는 신고 건수상 급증에도 경찰 대응력에 긍정 평가를 내릴만하다. 작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신고건수가 312건에 달했다. 반면 경찰이 신고건수중 '사건'으로 처리해 검거한 건수만 184건(59%)이다. 제주지역 스토킹 사건 처리율(59%)이 전국 최고치(평균 33.3%)를 기록했다. 작년 여름 피해자 가족의 신변보호요청에도 막지못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탓이다. 경찰은 그 사건 이후 가해자 위험성, 피해자 취약성 등을 종합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인공지능 CCTV 확대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키웠다.

제주가 그렇다고 스토킹 범죄 '안전지대'라 하기엔 이르다. 지역사회 스토킹 신고가 여전히 급증하고, 스토킹 범죄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더 큰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거기다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피해신고를 꺼리는 현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찰이 강력한 범죄예방 활동, 신고건에 대한 초기 적극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한시도 소홀해선 안된다.

원산지 속이는 업체 공개 강력 대처해야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언제쯤 근절될까. 잊을만 하면 값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불거지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업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이력제 점검 결과 위반업소 1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5곳, 미표시가 12곳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3곳은 네덜란드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제주산으로 표시했다.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다. 원산지 미표시 중에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다. 6곳이 덴마크와 스페인 등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걸렸다. 또 중국산 당근과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과 중국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이는 일은 단순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선 농산물을 애써 생산하는 농민들을 울린다. 또 국산으로 믿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것과 다름없다. 이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청정제주의 농산물까지 불신받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먹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업소는 만천하에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얄팍한 상술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열린마당

'우리동네 슈퍼맨·슈퍼우먼' 자율방재단

고 건 혁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방재안전담당

지난 8월 강남 일대가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으로 불렸던 한 시민의 사진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홀로 강남역 일대의 막힌 집수구를 뚫기 위해 맨손으로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은 큰 감동을 안겨줬다.

서귀포시에도 강남역 슈퍼맨처럼 비바람에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도 마을, 역을 지키려는 500여명의 슈퍼맨, 슈퍼우먼이 항상 있어 왔다.

이들은 생업을 갖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재난 피해가 우려되면 두손, 두발 걷어붙이고 나서는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다.

이들은 누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해 집수구의 흙과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선을 설치해 주민이나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또한 겨울철 대설이 내릴 때에는 빙판길 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주요 도로나 마을안 길 등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여름철 폭염에는 무더위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한다.

항상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동네를 묵묵히 지켜온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내 재난 사전 예방활동에서 긴급복구활동까지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소리 없이 활약하고 있다.

나는 이들을 진정한 '우리동네 슈퍼맨, 슈퍼우먼'이라고 말하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정 슬로건 교체

"다른 듯 닮은 구호 혼란"

○…제주시가 최근 2억원을 들여 132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도정 슬로건 교체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효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

도지사 임기에 따라 4년마다 이뤄지는 도정 슬로건 교체 작업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정 슬로건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만이 아니라 각종 홍보 자료에 노출되면서 도정 철학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계, 청정, 공존 등 매번 바뀌면서도 반복되는 듯한 슬로건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다"며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주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 진선희기자

"그린 마이스 공감하지만…"

○…제주도내 마이스(MICE) 산업 핵심 분야의 실무자들은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그린 마이스 도시'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지난 1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그린 마이스 협의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린 마이스를 추구해야 하지만 비용과 노력 소요 등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들을 표명.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린 마이스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대두. 박소정기자

부 고

강성훈((주)가인여행사 대표) 아버지 진주강공 용중(前 대정향교 전교·前 안덕라이온스클럽 회장·향년 75세)께서 서기 2022년 9월 20일 08시 5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9월 21일(수요일)
▶발인일시: 2022년 9월 22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창천 공동묘지

부인 구동자
아들 강성훈 며느리 김민숙
딸 강성희
강성경 사위 김현곤
강성근 고명욱
손 강지혁 외손 김제한
지수 서연
지원 효민
예림
고우리
우주

※ 연락처 :
강성훈 010-6474-3568, 김민숙 010-5236-3568
강성희 010-4699-3507, 김현곤 010-3639-5050
강성경 010-3639-7880, 고명욱 010-3169-2326
강성근 010-3189-978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여산송공 영관(前 중등교원·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9월 21일

아들 송성훈 며느리 양효순
종훈 이순정
철훈 선광덕
경훈 문갑순
맹훈 장유경
딸 송수자 사위 임영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 축
베 네 하 우 스
문의: ☎ 064-723-1105